친절한 교성 씨의 기본소득 QnA

김교성
계간《기본소득》편집위원

Q

기본소득이라 함은 공유부에 대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서,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BIKN의 정관 제2조(목적)입니다.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정당한 권리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이유로 공유부를 들고 있습니다. 과연 '공유부'란 무엇이고,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A

공유부는 '공통의 것' 혹은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합니다. 모두에게 속해 있는 자연적 혹은 인공적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공통부' 또는 '공동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공유부'가 좀 더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공유부는 모두의 것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동등한 몫으로 배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통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부는 '자연적' 공유부와 '인공적' 공유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기, 물, 땅, 석유, 석탄 등 물질세계의 '생태환경'과 '천연자원'은 우리 모두의 자연적 공유부입니다. 따라서 천연자원의 활용이나 생태환경에서 창출된 수익의 일정부분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연적 공유부 배당 모델은 미국 '알래스카주(州)의 영구기금'(APF) 배당입니다. 알래스카주는 알래스카주에서 발생한 모든 천연자원 임대료, 로열티, 로열티 영업이익, 미연방정부 천연자원 세입분배금 및 보너스의 최대 25%를 영구기금에 적립합니다. 그리고 영구기금 수익의 일부를 매년 모든 주민에게 조건 없이 동등하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지배당과 탄소배당 도입의

이념적 근거와 재정적 원천으로 토지보유세와 탄소세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고전적인 정치학자들에 의해 모두가 공유해야 할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고 주장되었던 것들입니다.

인공적 공유부는 사회적 생산의 결과물 중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활동을 통해 얻어진 것(Negri & Hardt, 2014: 16)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창출하여 큰 수익의 원천이 되는 빅데이터와 정동affect, 혹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인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축적되어 온 지식과 아이디어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공적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알 수 없고,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입니다(금민, 2020: 11).

'디지털 노마드' 사회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온라인 공간에 머물면서, 여러 플랫폼에 접속하고 클릭하며,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며,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은 단지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빅데이터를 전유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막대한 수익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거나 정당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경기도는 지역화폐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유상거래 수익을 지역화폐를 사용한 주민들에게 배당하였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인공적 공유부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정치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콜Cole, G.은 '현재의 생산력은 현재의 노력과 사회적 유산의 공통 결과이며, 모든 시민이 이러한 공동유산의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의 생산성에 대한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무엇이 공유부인지' 다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성격의 생산 네트워크와 사적 소유 간 갈등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구라는 공동체에 함께 사는 구성원입니다. 인류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 있으니, 해당 자산과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동등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개인으로 홀로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공유부 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 사회의 개인은 모두 안에 존재하면서 개인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함께' 그리고 '따로' 서는 주체일 것입니다. 공유부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개인과 공동의 관계에 대한 재구성이며, 공통의 기반 속에 더 잘 존재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주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참고문헌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Negri, A. & Hardt, M. (2009) Common Wealth. 정남영·윤영광(역). (2014)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사월의 책.